

내 손안의 “서울”

2025. 9. 3. ~ 10. 2.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곳,
신정동과 신월동, 양천구와 서울시와 함께한 슬기튼튼 1반의 놀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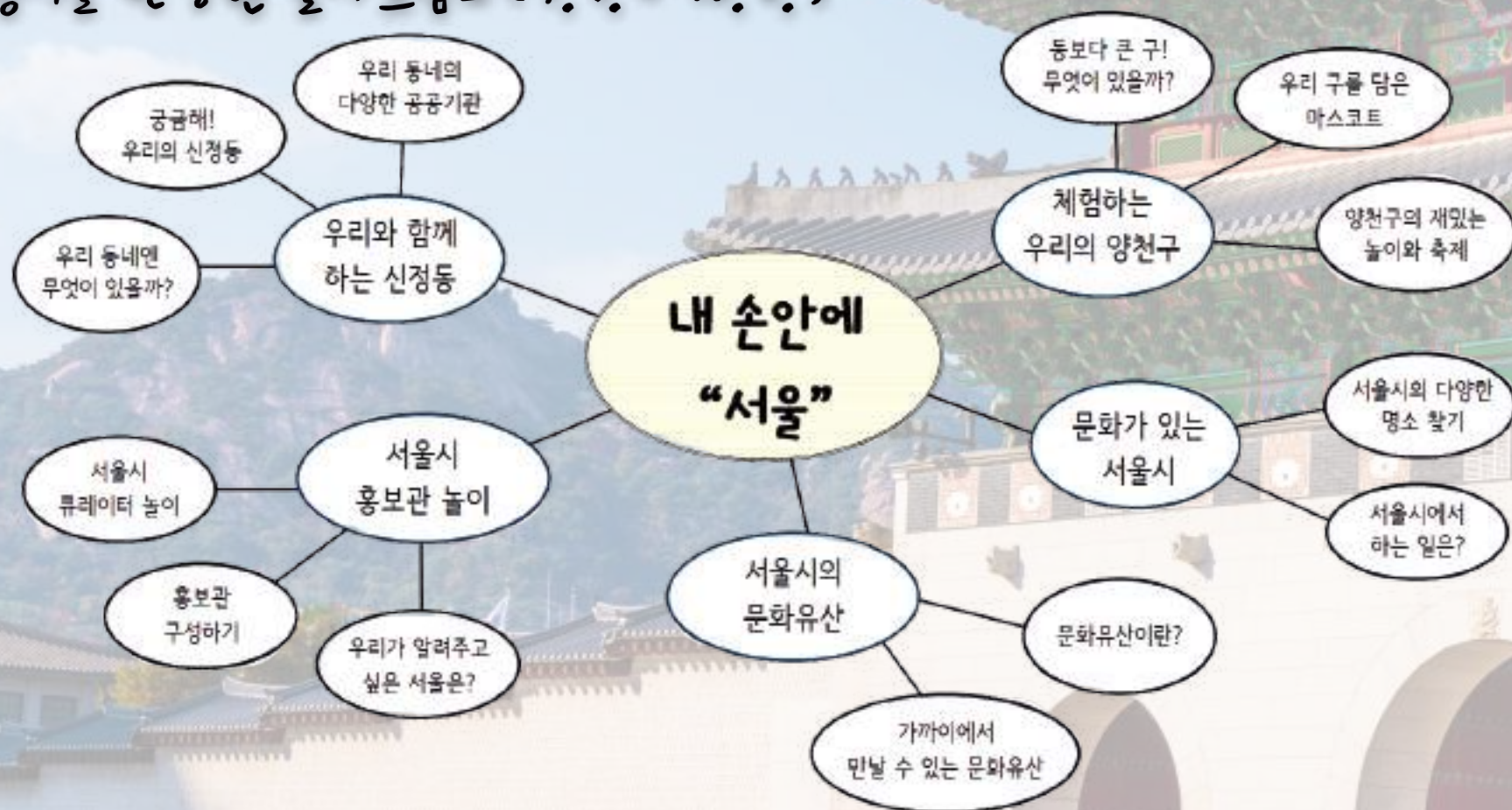
 튼튼유치원

“내 손안의 서울”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유아기의 만5세 아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세상과의 관계를 넓혀가는 시기입니다. 매일 걸어 다니는 길, 자주 들르는 가게, 친구들과 뛰노는 놀이터 등 ‘우리 동네’는 아이들이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공동체입니다. 이에 유아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출발해 점차 그 관심의 범위를 ‘양천구’,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확장해 나가며 자신이 속한 사회를 이해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들과 장소가 있는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며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고, 양천구의 유래와 명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키우며, 더 나아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이유와 서울시의 상징,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며 탐구력과 사고력이 발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모둠 활동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경험하길 기대하며 “내 손안의 서울” 놀이가 시작합니다.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 (9. 3. ~ 10. 2.)



“우리 동네에는 내가 필요한 게 다 있어!”

‘우리 동네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물음에 아이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떠올려 보고 이전 경험을 나누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확장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 아플 때 가는 병원, 위험할 때 도와주는 소방서 등 우리 동네의 다양한 장소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하자 아이들은 우리 동네의 다양한 건물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장소를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것과 알고 있는 지식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며 그림 속에서 건물의 특징을 표현하거나, 사람들의 활동을 덧붙이며 사회적 상상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께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맛있는 빙수를
파는 카페가 있어!



휴대폰 가게에는 휴대
폰이 정~말 많아!
나도 사고 싶었어~



다이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 그래서 다~있어! 인가?



학원도 정말 많아!
피아노 학원이라든 태권도 학원도
있는데 너무 재밌어~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
주는 병원도 있어!
귀여운 강아지도 봤지~



나쁜 사람을 잡아가는
경찰서도 봤어!

경찰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



엄마랑 걸어서
달갈비 집에 갔어!
엄청 맛있어서 많이 먹었지~



“우리 집 앞에는 맛있는 돈까스 집이 있어!”, “어? 우리집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장소를 표현한 아이들은 건물의 모양과 위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관찰력과 공간 감각, 상상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후 놀이가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이 건물들을 다 모아서 우리 동네를 만들어볼까?” 하는 아이들의 제안으로 큰 종이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신정동’과 ‘신월동’의 지도 만들기 위해 구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지도와 검색할 수 있는 로드 맵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길을 그리고, 자신이 그린 다양한 장소를 붙이며 아이들은 한마음으로 협동하여 [필요한 곳이 다 있는 우리 동네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나누며 협동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웠고, 완성된 지도를 보며 “우리 동네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며 자신이 속한 공간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깊이 느꼈습니다.

내가 다니는 태권도는
유치원이라 집이라
엄청 가까워!



주말에 빵집에 갔어!
내가 좋아하는 빵이
가득했어~ 냄새도 좋아!



신정 네거리에서 지하철을 타봤어!



우리 집 앞에
축구 학원도 있어!



맛있고, 재밌는 보물이 가득한
우리 동네 지도야!

“도서관에서는 읽고 싶은 책을 다~ 읽을 수 있어!”

우리 동네 지도를 완성한 후, 아이들은 지도 속에 등장했던 건물들 중에서 특히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불이 나면 도와주는 소방서도 있어요”, “경찰이 있는 경찰서도 꼭 있어야 해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실제 우리 동네 공공기관의 건물 사진을 관찰하면서 “이 건물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문이 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네!” 하며 건물의 형태적 특징과 기능적 이유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탐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관찰력과 탐구심을 기르며, 사람들이 서로의 역할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줘!

창문이 많은
교육청이야~

소방서는 소방대원들이
빨리 출동할 수 있게 지어졌어!



경찰서는 나쁜 사람도
잡아주고,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지!

보건소는 예방 주사도 맞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야!



공공기관의 사진을 투명 필름을 위에 올려 겹모양을 따라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하니 아이들은 “우체국은 다 빨간색이네?”, “경찰서에는 다 독수리가 있어!” 하며 사진 속 건물의 특징을 관찰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따라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인내심을 발휘했고, 각자의 그림에 작은 변화를 주면서 창의적 표현도 경험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진 속 사물의 특징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재구성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그 안의 사람, 건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에 나온 해치는
무서운데 서울시 해치는
귀엽게 생겼네~

해치는 나쁜 걸 막아주고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전설의 동물이야!

광화문은 문이 3개야!
왜 3개나 있을까?

“서울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어!”

양천구에 대해 그 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된 아이들은 더 넓은 지역 범위인 서울시로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양천구에서 가장 좋아했던 마스코트 “해우리”처럼 서울시에도 마스코트가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 하며 자신만의 해치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서울에 대한 이전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 나누니 아이들은 서울시에 있는 유명한 장소를 가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여 서울시의 유명한 장소인 “명소”에 대해 알아보고, 명소에 있는 건물의 생김새를 세심히 관찰하며 박스 모형으로 표현하거나 쌓기 교구와 빗 교구로 구성하며 놀이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길쭉한 기둥에는
엘레베이터가 있어!

남산타워 위에 올라가면
식당이 있어!

사람들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지~

롯데 타워는 123층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지~

나뭇 줄을 높이
쌓아서 남산 타워를
만들었어!

북촌 한옥 마을에는
기와집들이 많아~
진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서대문은 돈의문
이라는 이름도 있어!

시원한 물이 흐르는
청계천에서는
파란 빛이 나!

대문들은 다 기와가 있어!
집처럼 생긴 문 같아~

“63빌딩과 롯데 타워는 다 유리로 되어있는 것 같아!”

다양한 명소를 박스 모형으로 표현하는 활동에서 아이들은 창문이나 유리로 된 부분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 명소의 건물처럼 표현하기를 원했던 아이들은 창문과 유리 부분에 투명 필름을 붙이고 매직으로 색칠하며 작품을 완성하였고, 햇빛이 비치면 바닥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햇빛이 가장 많이 비추는 바깥 놀이터에 가지고 가서 놀이하기를 제안하여 바깥 놀이터에서 그림자 놀이로 이어졌고, 흰 종이에 비춰진 명소의 그림자를 관찰하고 크레파스로 표현하면서 빛과 그림자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만든 작품이 빛을 만나 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며 탐구적 태도로 놀이하였습니다.

쌍지 길에는 우리나라
전통 골건들을 구경하고
살 수 있어!

남한산성은 적한테서
우리를 지켜줬지!
아주 딱딱한 돌 벽이야~

국회의사당은 우리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이지~

내가 만든 진흙을
 옮겨 줄게! 튼튼한
 롯데 타워를 만들자~



63빌딩은 베코난 상자 같아!
 우리 같이 흙을 베코로 만들어보자~



남산에 있는 남산 타워는 아주 얇고 길쭉해!
 나뭇가지로 만들어 볼까?



집게 모양 꼭대기를 가진 롯데 타워야~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베코 모양 63 빌딩!



길쭉한 기둥과 석당이 있는!

남산과 남산 타워!



“모래로 명소를 만들 수 있을까?”

다양한 재료로 서울시의 명소를 만들어 본 아이들은 바깥 놀이터에서 서울시의 명소를 구성하며 놀이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어떤 명소를 구성할까?”에 대해 생각을 모아자 남산타워, 63빌딩, 롯데타워 등 익숙한 명소들을 떠올렸고, 이를 모래로 구성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모둠을 정하여 구성 방법을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래가 잘 부서져 건물을 만들기 어려워하였지만,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을 섞으면 튼튼해질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함께 물을 가져와 진흙을 만들고 구조를 튼튼하게 세우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협력하고, 무너진 부분을 함께 보완하며 문제 해결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남산타워와 63빌딩, 롯데타워를 바라보며 아이들은 “진짜 서울 같아요!”, “우리 도시가 생겼어요!” 하며 성취감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유산이라는 보물이 있어!”

서울의 명소를 탐색하고 구성했던 아이들은 점차 관심의 범위를 넓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진 자료와 영상을 함께 보며 경복궁, 불국사, 수원 화성, 송례문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펴보자 아이들은 “옛날에 만든 건데 아직도 있어요!”, “정말 멋져요!”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문화유산이 오래 전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건 우리가 잘 지켜야 해요.”, “다시는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며 보존과 소중함의 의미를 스스로 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지점토를 이용해 자신이 가장 인상 깊었던 문화유산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기로 하자 각자 불국사, 한복, 광화문, 김치 등 다양한 작품을 정성스럽게 빚으며 세밀한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 몰입하였습니다. 이 놀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것을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성취감으로 놀이와 학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보물인
전통 음식을 만들래~
추석에 먹는 송편!

서울에 돌로 만든
해치 동상이 많아!
해치도 우리나라의 보물이야~

탈을 쓰고 추는 탈춤도
우리나라 문화유산이야!

왕좌는 옛날에 왕이
앉았던 의자야!
나도 앉고 싶다~



한복은 우리나라의
전통 옷이야~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입었지!



나는 전통 탈을 만들었어!
탈을 쓰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재미있어하지~



“내가 만든 문화유산에 색을 입혔어~”

지점으로 자신만의 문화유산을 만든 아이들은 작품이 마른 후, 수채화 물감으로 색을 입히며 세밀하게 표현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이 부분은 돌이어서 회색이에요.”, “지붕은 기와 색으로 칠해야지!” 하며 각자의 작품에 어울리는 색을 신중히 선택하며 몰입하였습니다. 색칠을 마친 뒤에는 자신이 만든 문화유산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짧은 설명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경복궁이에요. 왕이 살던 곳이에요.”, “송편은 추석에 먹는 우리나라 전통음식이에요.” 등 각자 알게된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며 언어 표현력과 이해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이 단순히 옛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보물임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고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어!
대파랑 양파가 들어있지~



내가 좋아하는 김치는
우리나라 음식이야!
아주 빨갭게 칠해야지~





우리 동네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공공기관이 많아!



서울시에는
명소가 엄청 많아!
어떤 걸 그릴까?



어떤 걸 알려주지?
아! 양천구의 새!
평을 알려줄래~



나는 귀여운 파스코트!
해우리랑 해누리를
알려줄래~

동생들이 명소를
어려워 할까?
유명한 장소라고 소개해야지~



옛날엔 냉장고가 없어
서 얼음을 석빙고에서
얼렸어!



“우리가 놀이한 것들을 소개하는 홍보관 놀이를 하자!”

‘우리 동네’, ‘양천구’, ‘서울시’를 알아보고 다양한 놀이를 해 온 아이들은 그동안의 놀이와 배움을 다른 반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는 홍보관 놀이를 스스로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도 전시회를 해보자!”, “작은 박물관처럼 꾸미면 어때요?” 하며 소개할 내용을 함께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각 모듈별로 소개할 주제를 정한 뒤, 포스터를 만들고 역할을 나누어 연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스터에는 자신들이 탐색했던 동네의 가게, 양천구의 명소, 서울의 건물, 그리고 만든 문화유산 등이 담겼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직접 연습하며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협력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즐기며 놀이하였습니다.



언제 하는 지
동생들에게 알려
줘야 해!

홍보관에서 어떤 걸 알
려주는 지 쓰면
더 기대할거야!



경복궁의 문인
광화문도 그려주자!



우리 동네는 신정동이
랑 신월동이 있어~
유치원은 신정동이야!



동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걸 알까?



서울시 파스코트인 해치로
꾸미면 동생들이 많이 오겠지?



“우리의 홍보관 이름은?”, “해피! 해치! 홍보관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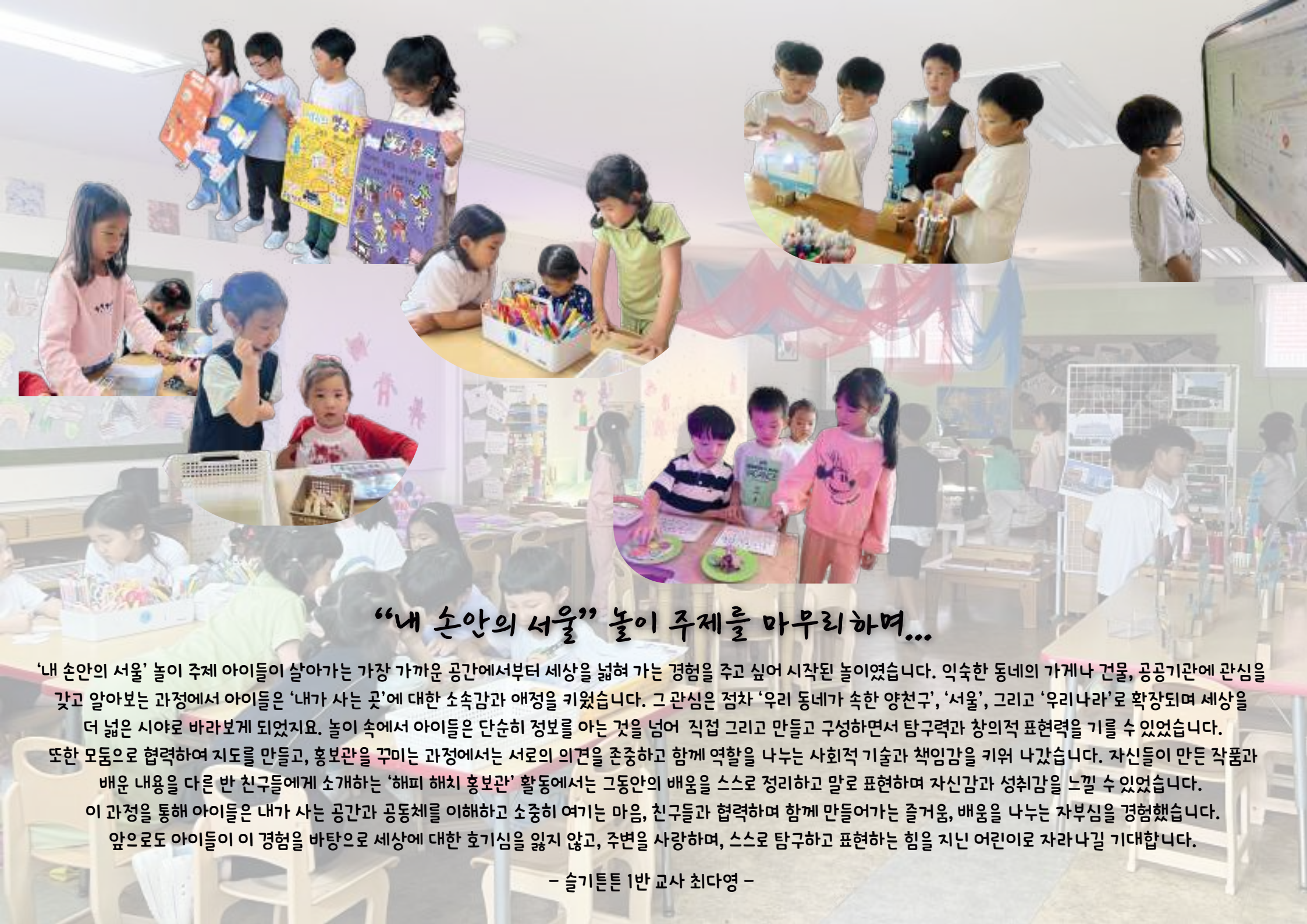
홍보관 놀이를 준비하던 아이들은 “우리 홍보관에도 이름이 있어야 해요!” 하며 직접 홍보관의 이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함께 생각하던 중, 서울시의 마스코트를 떠올린 아이가 “해피 해치처럼 하면 어때요?”라고 제안하자 모두가 “좋아요! 우리도 서울처럼 멋진 홍보관이 될 것 같아요!” 하며 ‘해피 해치 홍보관’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 정한 이름이 마음에 들어 “우리 홍보관은 행복한 해치가 지켜주는 곳이에요!” 하며 자신들의 놀이와 배움이 담긴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홍보관 이름이 담긴 포스터를 그동안 탐색했던 우리 동네, 양천구, 서울시, 문화유산 활동의 사진과 그림을 붙이고 설명하는 글을 쓰며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홍보대사야~”

‘해피 해치 홍보관’을 완성한 아이들은 “이제 동생들과 다른 반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라며 스스로 홍보관에 초대할 친구들을 정하고, 어떤 순서로 안내할지 의논했습니다. 홍보관 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알아본 우리 동네, 양천구, 서울시,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유산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 직접 만든 작품과 지도, 놀이를 차례로 소개하며 “이건 우리가 만든 남산타워예요”, “양천구의 마스코트는 이거예요!” 하며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초대받은 동생들과 친구들은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하고, 함께 놀이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배움에 대한 자부심과 공유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 손안의 서울” 놀이 주제를 마무리하며...

‘내 손안의 서울’ 놀이 주제 아이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부터 세상을 넓혀 가는 경험을 주고 싶어 시작된 놀이였습니다. 익숙한 동네의 가게나 건물, 공공기관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키웠습니다. 그 관심은 점차 ‘우리 동네가 속한 양천구’, ‘서울’, 그리고 ‘우리나라’로 확장되며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되었지요.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직접 그리고 만들고 구성하면서 탐구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둠으로 협력하여 지도를 만들고, 홍보관을 꾸미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역할을 나누는 사회적 기술과 책임감을 키워 나갔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작품과 배운 내용을 다른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해피 해치 홍보관’ 활동에서는 그동안의 배움을 스스로 정리하고 말로 표현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내가 사는 공간과 공동체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친구들과 협력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 배움을 나누는 자부심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주변을 사랑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표현하는 힘을 지닌 어린이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